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미얀마-태국,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문항으로 다웨이 항만 개발 박차	2
□ APMT,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샤먼항 송위 '컨' 터미널 지분 25% 매각 예정	3
□ 미국 롱비치항, 토요타와 20년간 임대계약 연장	4
□ 대만 카오슝항, 중국과의 환적사업 촉진을 위해 취안저우항과 LOI 체결	5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02-2105-2897, julya7@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얀마-태국,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문항으로 다웨이 항만 개발 박차

- 지난 2010년 11월 태국의 Italian-Thai Development사는 미얀마 항만청(Myanmar Port Authority)과 86억 달러 규모의 다웨이(Dawei) 항만 및 산업단지 개발, 60년간의 운영에 대해 계약을 체결
 - 신규로 개발될 다웨이 항만은 미얀마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2만~5만톤급 선박 25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2개 선석에 1억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 태국의 람차방항 규모의 10배에 이르는 규모임
 - 산업단지는 총 250km²에 제철소, 비료공장, 발전소, 석유화학 산업단지, 석유 정유시설,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임
- 개발 공사는 총 3단계로 향후 10년간 진행될 계획이며, 2011년 1월 Italian-Thai Development사는 개발의 첫 단계로 미얀마 다웨이 지역과 태국 중서부의 푸남론(Pu Nam Ron)지역을 연결하는 17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
- 그러나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은 미얀마의 반정부군인 Karen National Union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어 왔으며, 지난 7월 말에는 미얀마 정부군과 반정부군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
- 더욱이 대단위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다웨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피해로 인해 여러 환경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의 반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어려움 산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와 태국의 Italian-Thai Development사는 계획대로 다웨이 항만과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대 유럽 수출입 관문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천명

자료 : www.dredgingtoday.com, 2011.09.01.

김찬호 전문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APMT,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샤먼항 송위 '컨' 터미널 지분 25% 매각 예정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인 APMT는 중국 샤먼(Xiamen)항 송위(Songyu) '컨' 터미널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절반인 25%를 합작 파트너인 Xiamen Port Holding Group에 매각할 예정
 - 송위 '컨' 터미널은 2007년 9월에 오픈되었으며, 연간 '컨' 처리능력은 260만 TEU임
- APMT는 아시아 역내 교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예정이며,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금번 지분 매각을 결정
 - APMT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시장에서 투자기회를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음
- APMT의 아태지역 CEO Christiansen은 중국 시장이 인건비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위안화 절상 등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PMT의 투자 우선지역은 앞으로도 중국이라고 강조
 - 그러나 Christiansen은 향후 중국의 대 미국, EU 수출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중국의 '컨' 물동량 증가율이 과거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APMT는 현재 중국의 10개 '컨'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¹⁾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2009년부터는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음

< APMT의 아태지역 항만 분포도 >



자료: www.lloydlist.com.com, 2011.08.31 / APMT 홈페이지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2010년 4월 APMT는 선전(Shenzhen) 옌텐(Yantian)항의 지분 9%를 5억 2,000만 달러에 COSCO에 매각하였으며, 매각 후에도 옌텐항의 지분 10%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음.

KMI 국제물류위클리

□ 미국 롱비치항, 토요타와 20년간 임대계약 연장

- 롱비치(L/B)항 항만운영위원들은 2011년 8월 29일 미 Toyota Motor Sales에 20년간의 장기 임대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롱비치항은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자동차 메이커의 핵심 환적허브로서의 입지를 유지 가능
 - 1981년부터 롱비치항의 임차인이 된 토요타는 2006년 마지막 장기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금번 임대계약은 2009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됨
- 신규 임대계약에 근거하여 토요타는 매년 1,000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선박에 청정 연료 사용을 포함하여 항만의 환경오염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취할 예정
 - 또한 2014년까지 토요타의 차량을 터미널 밖으로 수송하는 모든 트럭들은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²⁾을 준수해야 하며, 토요타 구역 내에 건설하는 대형 건물에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을 사용해야 함
- 금번 신규 임대계약에는 토요타의 Pier B 시설(144 acre)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동 시설을 통해 매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20~30만대가 처리 중

< 롱비치항 전경 >



자료: www.lloydslist.com, 2011.09.02.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2) 2008년부터 LA/LB항은 클린 트럭 프로그램(CTP, Clean Trucks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타가 지켜야 할 기준도 이와 유사함. CTP의 목표는 5년 내에 LA/LB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선대와 트럭의 배출가스를 80%까지 감축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 CTP는 LA/LB항에 1989년 이전 출시된 트럭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음.



KMI 국제물류위클리

□ 대만 카오슝항, 중국과의 환적사업 추진을 위해 취안저우항과 LOI 체결

- 대만 카오슝(Kaoshiung)항은 중국과의 환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푸지엔(Fujian)성 취안저우(Quanzhou)항³⁾과 상호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
 - 현재 국제 서비스 노선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취안저우 지역 국제화물은 샤먼(Xiamen)항에서 환적 중임
 - 취안저우 화주들이 카오슝항을 이용하게 되면 취안저우와의 근접성 및 대륙간 서비스 루트와의 직접 연계성으로 샤먼항을 이용할 때보다 환적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금번 LOI 체결을 통해 두 항만은 정보 네트워크 지원, 공동 마케팅전략 개발, 직원 훈련, 배후 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육성, 대만과 중국간 무역 및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KHB(Kaoshiung Harbour Bureau)는 중국의 2급(second-tier) 항만들이 카오슝항을 환적 허브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취안저우항을 포함한 중국의 12개 항만을 왕래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정박료 및 예선료에 대해 특별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
 - 이러한 인센티브는 대만과 중국간 직항로 연결을 증가시키고, 두 지역간 물류 협력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7월 '카오슝 컨 터미널'(KAOCT)에 설치된 4기의 포스트 파나막스 갠트리 크레인 중 2기가 22열 아웃리치(outreach) 규모의 신규 크레인으로 교체 및 가동되면 신규 크레인으로 10,000TEU급 대형 '컨' 선 2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KAOCT의 생산성이 8~10% 제고될 것으로 추정
 - 그밖에 카오슝항은 2척의 대형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현재 680m의 선석을 추가로 75m 연장할 예정임
- 카오슝항은 최근 몇 년간 '컨' 물동량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010년에는 '컨' 물동량이 증가하여 920만 TEU를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물동량 증가율은 7%에 불과

자료: www.ci-online.co.uk, 2011.09.02.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3) 중국의 제12대 컨테이너항이며, 2010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137만 TEU를 기록.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